20220831

미래진로동아리 summer 웹사이트 개발 활동 1차 마감 및 느낀점

:3학년 1학기 소프트웨어공학에서 과제제출을 위해 팀플을 한 것을 제외하고 개발을 위해 팀을 직접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도, 주제도 스스로 생각해내야했고 공부 방향도 찾아야 했다. 무엇을 모르는지 조차 몰랐기에 모르는 게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알기 위해 어떤 문서를 봐야 하는지 까지 스스로 찾아내는 힘을 길렀던 것 같다.

프론트를 담당해서 기본적인 회원기능과 게시글 작성, 댓글 작성 기능만 보이는 대로 구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로그인만 해도 보안 기능을 신경써서 유저의 정보를 저장해야했고 로그인된 유저를 다른 페이지에서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cookie나 localstorage를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적 요인도 필요했다. 코드는 중복된 것이 많았고, 그만큼 수정할 부분이 생겼을 때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서, 왜 코드 리팩토링이 필요한지도 느꼈다. 기술적인 측면, 디자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api와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의 최신 개발은 이런 도구들을 얼마나 활용하는 지가 관건일 것 같다. 단지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도구들을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다.

학교에서 의무로 참여한 소웨공 팀플과 이번 팀플의 차이도 분명히 느꼈다. 처음 본 팀원과 활동했던 학교 팀플은 적응하는 기간이 걸렸다. 삭막한 분위기에서는 좋은 의견이 떠올라도 돌려서 얘기해야 했고, 반박해야 할 의견은 제시하면서도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의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심했다. 개발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신경 쓰거나, 제출 기한에 쫓겨서 구현하고자 하는 부분도 많이 포기했던 것 같다.

이번 summer 프로젝트는 나를 포함해서 두명에서 활동했기에, 의견을 조율하는 데도 수월했고 팀원과 합이 잘 맞아서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없었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내어서, 프로젝트에 진심을 다해서 활동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시너지 효과였던 것 같다. 상대가 열심히, 더 많이 개발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덧붙여서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팀플에서 핵심적으로 느낀 것은, 홀로 개발하는 것보다 어떤 목표를 외부로부터 자극 받았을 때 개발하고자하는 의욕이 크다는 것이다. 누군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길 요구할 때, 혹은 같은 팀원이 더 열심히 개발하고자 할 때, 나 역시 시너지 효과를 배로 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개발은 언제나 장기전으로 흐르고, 매순간 의욕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개발의 목표가 어떤 고객의 니즈를 완성시키기 위함이거나, 같이 일하는 팀원이 함께 열심히 해준다면 나는 그 의욕을 포기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의 활동들은 팀원과 함께, 혹은 내 개발을 필요로 하는 외부인이 존재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